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학교를 마친 아이 Daniel을 픽업해야 하는데 다른 일로 바빠서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려고 한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땐 “Go Pick up Daniel from the school.” 이라고 하면 된다.

같은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밖에 나가봐! Go outside!

2. 학교에서 다니엘 좀 픽업해 줘.
Go Pick up Daniel from the school.

3. 딜러에서 가격 좀 조사해 봐.
Go check the price from the dealer.

4. 가서 이 열쇠를 복사해 와.
Go copy this key.

5. 가서 펜 좀 갖고 와. Go bring a pen.

6. 가서 이 편지 부쳐. Go mail this letter.

7. 가서 그에게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말해.
Go tell him that I have no time.

8. 가서 네 방이나 닦아.
Go clean your room.

9. 가서 (담배)를 사와.
Go buy a pack of (cigarettes).
(소주) some more soju.
(쌀) some rice.
(커피) some coffee.
(감자) some potatoes.

10. 와서 네 신발을 가져가!
Come get your shoes!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NYP “MLB 2020시즌 개최 비관적”

메이저리그(MLB) 2020시즌 개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아예 시즌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4월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디 어슬레틱’의 켄 로젠탈은 이날 “구단측이 선수노조의 시즌 114경기 안을 공식 거부했다.”고 전했다.

구단들은 지난 3월 합의안에 포함된 시즌 재개 및 일정 결정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합의안에 따르면 시즌 일정은 구단측이 결정할 수 있다. 구단들은 앞서 7월1일부터 82경기를 치르고, 선수들의 연봉을 누진적으로 차등 추가 삭감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액 연봉 선수들은 연봉이 약 70% 이상 깎이는 안이었다. 무관중 경기에 따른 손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수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선수노조가 이에 대응해 구단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114경기를 치르는 안을 역제안했지만 구단이 이번에는 이를 공식 거부했다.

ESPN의 제프 파산은 ‘구단들이 다시 새로운 제안을



▲ 다저 스타디움 전경. 사진= shutterstock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단측이 비올 연봉 삭감 안을 유지한 채 50경기만 치르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철회된 모양새다.

하지만 양측이 시즌 개막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미지수다. 되려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뉴욕포스트(NYP)의 조

엘 서먼은 이날 “구단과 선수노조 양쪽 모두로부터 올 시즌 개막에 대한 회의론과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구단과 선수노조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시즌이 제대로 된 시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반인 최소 82경기 이상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치르기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최소 3주간의 스프링캠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아쩌면, 2020시즌 메이저리그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위기다.

NBA, 8월 1일 시즌 재개 확정

NBA가 마침내 팬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이날 NBA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체 30개 구단 가운데 22개 팀만 출전해 8월 1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19-2020시즌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챔피언결정전은 최종 7차전까지 갈 경우 10월 13일에 마무리된다.”고 보도했다.

NBA는 대개 시즌을 10월 중·하순에 시작해 챔피언결정전이 다음 해 6월에 끝나지만 2019-2020시즌이 10월에 끝날 경우 2020-2021시즌은 올 12월 또는 내년 1월 개막할 가능성이 크다. NBA 2019-2020시즌은 팀당 정규리그 15~19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올해 3월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다.



▲ NBA가 오는 8월 1일 시즌을 재개한다. 사진= shutterstock

NBA의 계획은 30개 구단이 모두 재개되는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동·서부 콘퍼런스 상위 8개 팀씩 16개 팀과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8위와 6게임 이하 차이가 나는 6개 팀(서부지구에서는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새크라멘토, 샌안토니오, 피닉스 등 9위부터 13위까지 5팀, 동부지

구는 9위 워싱턴)까지 총 22개 팀만 남은 일정을 마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확정될 경우 그대로 시즌을 마치게 되는 팀은 동부 콘퍼런스에 살럿 호니츠, 시카고 불스, 뉴욕 닉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애틀랜타 호크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까지 6개 팀이고, 서부에서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외된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